

수요간증 양귀비목사 <제목: 나의 가장 아픈 맘 그때를 기억하라.>

<제목: 나의 가장 아픈 맘 그때를 기억하라.>

수요간증 양귀비목사

안녕하세요?

대전 평화교회 양귀비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치어부에서 교역자를 맡고 있습니다.

치어부서에서 전도되어 성장하면서 선생님과 선배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웠고

그 가르침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입생 때 이 시대가 신부의 시대라는 것을 배운 후 항상 예수님을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길을 다닐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손은 항상 살짝 주먹이 쥐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부르면 응, 그래~하시며 더 가까이 오시는 듯 했고

언제나 나의 손을 잡고 추운 날엔 어깨동무도 하며 함께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사실 신입생 때는 그저 제 생각으로 드는 느낌이라니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제게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예술제도 가고 교회도 가신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느껴지는 그 느낌과 그때의 느낌이 동일함을 느끼고

그 때도 정말 예수님이셨고 그 때와 같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즐겁고 재밌게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겪으신 지옥의 고통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때 조건을 세우지 못했는지, 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선생님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지... 언제나 한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건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7일씩 4일씩 금식을 하는 등

조건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를 시작했고 기간을 두지 않고 되도록 매일 철야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철야를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심을 느꼈고 제 몸에는 너무나 강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 진동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거나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진동 후 내가 다시 올게~ 하는 마음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에는 진동이라던지 영적인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났고

그러다 올해 8월 초부터 제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나와서 받아 적기가 너무 어려워 주님께 기도하니 그 후로는 감동으로 받게 되었고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기억하여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도 그와 같이 주님의 가장 아픈 맘을 기억하고 심정을 알길 원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로 심정에 관한 기도를 하는 중 받은 말씀입니다.

2009년 9월 19일 부산에 순회를 갔다가 부산지역 지도자 철야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심정을 너무 몰라 너무나 애가 타서 기도했습니다.

스치는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심정을 느끼고 싶어 오랜 날을 기도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정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날도 정말 심정이 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두 팔이 움직여 양쪽으로 벌려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영상이 그려져 보였는데 저를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예수님께서 매달려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즉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예수님을 한 때 사랑했던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억울해 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이 잔잔하셨고 오히려 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느껴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영상이 보였는데 이번엔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 짝 들어찬 사람들이 보였고 너무나 참담하게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험악한 인상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 보다도 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아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 그 모든 아픔 참아 이겨 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본 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파 통곡을 하면서 이 모든 당신의 아픔,

그 심정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땐 영이 깨어서 다 알겠으나 기도가 끝나면 육적으로 돌아가버리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 감동을 그대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입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의 말을 적어라”라는 말이 나왔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말씀을 받기 시작한 시각은 한시가 넘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 여호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적어라.

난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맘을 느껴라.

나는 아파. 너무 아파. 내 맘이 너무 아파.

그래, 예수의 마음을 보았느냐? 내 맘을 보았느냐? 아직도 잘 모르지만 너에게 말하노라. 깨어라.

그래, 너를 통해 위로 받으려나.

선생의 고통, 눈뜨고 못 보겠다. 너가 나의 심정 좀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전해줘라.

그래, 너희는 나에게 아주 많이 미안해야 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고 창조했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 하느냐? 내 맘도 모르고

내가 하지 말라고 선생 통해 그리 일러도 왜 너희는 그

말을 잠시 뒤면 무시하고 잇느냐?

내가 하라고 그렇게 한 것들 왜 무시하고 하지 않느냐?

그래, 울어라, 울어. 내가 울고 있는데 너희가 안 울면 안 되지.

나와 함께 울자. 이 세상, 한탄스런 이 세상 보며 울자.

맘껏 울자. 그래, 세상은 나에게 미안해야 돼. 죄송해야지.

내가, 내 맘이 얼마나 아픈데 너에게,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이 얼마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세상아! 죽어. 너희는 그러다 죽어.

사탄이 그리 좋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탄 것이 좋으냐?

슬프고 한스러운 이 세상 뒤집어, 무너뜨려 버릴테야.

내 맘은 이렇지만 내 너희를 어찌 그리하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맘이 찢어져 죽을 것만 같구나. 죽을 것만 같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나는 예수니라.

내 고통을 보았느냐? 내가 채찍질 당할 때 나를 조롱하고 더 때리라며 부르짖는 저들을 보았느냐?

난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아픔, 고통이어도 참았다. 저들을 구원 하고 싶어서, 너무 살리고 싶어서.

내 맘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니? 이런 내 맘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겠니?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하는지, 왜 살려야 하는지 알아?

그들은 내가 태초부터 사랑하여 만든 내 새끼, 내 자식들이다. 내 사랑 내 애인들이다.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밟다고 투정부려도 어찌 그 애인 두고 떠나겠냐?

끝까지 달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사랑아. 기억 좀 해다오. 생활 속에 나를 기억하고 내 슬픔과 아픔을 기억해다오.

나의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을 보았지. 어떻냐?

넌 무서웠냐? 슬펐냐?

내 심장은 그들로 인해 터졌다. 그때 이미 내 심장은 터져 나는 죽었다.

나를 한때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그들이 나를 두고 앞에서 조롱하는구나.

죽어가는 나를 조롱하고 힐문하여 내 심장을 터뜨리는구나.

그러나 어찌하리. 내가 사랑하는걸.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이토록 원하는데 어찌하리.

죽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이 너희를 불태워 존재치 못하게 하리라.

내 사랑하는 이들 섭리사, 내 애인들 다 내놔.  
내 사랑들 다 내놔. 죽고 싶으냐? 내 손에 죽고 싶으냐?  
얼른 내 사랑 애인들 내놔라.  
저렇게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내 사랑들의 마음, 정신, 영속에 사탄이 있어.  
그래서 나를 그리 대하는 거다.  
그들은 죄가 없지. 다 사탄이지.  
그러니 너희는 사탄을 박멸하라.  
죽여라. 살 가치도 없는 사탄 다 죽여 버려. 내 사랑 다 찾아와라.  
난 원한다. 너희를 너무나 원한다.  
네게서 죄의 냄새가 나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  
허나 곧 있으면 나를 못 느끼고 못 보게 될텐데.  
내가 너희를 두고 어찌 떠날런지.. 내 맘 불안하게 하지 말고 준비하라.  
깨어라. 아무도 그 어떤 왕사탄도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깨어 기도하라.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 너희의 머리, 정신을 지켜라.  
주인 없는 땅은 타인이 밟는다. 가차 없이 밟는다.  
환난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깨어라.  
난 너를 위해 만든 저 천국을 다녀오마. 곳곳하게 서있으라.  
아무리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려도 나를 기억하고 참아라. 참아주어라. 나를 위해.  
나는 곧 떠날텐데 네가 나를 위해 깨어 있어다오.  
세상은 흔들린다. 무너진다. 계시자들 통해 계시하였으니 들어보아라.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아라. 건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환난이 온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이때, 지금 깨어 준비하라.  
지금이 아니면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한 자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하리.  
죽음 앞에 체면이 다 뭐냐. 기억하라.  
나의 아픔도 기억하고 환난도 기억하고 내 얼굴 기억하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다시 오마.

- 중간 찬양을 위해 잠시 기도시간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20분 경이었습니니다.  
찬양 후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글이 쓰여졌는데 시각은 3시 42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짧게 전하니 들어라.  
난 너희를 사랑하여 창조했다.  
너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너희를 너무 사랑했다.  
내 마음 기억해라. 기억해다오. 나 예수를 기억해다오.  
너희는 선생이 저 골방에서 망연자실 앉아 한숨 쉬는 모

습이 보이지 않느냐?  
능력 없어 보지 못하면 느껴라.  
한숨 쉴 시간도 없이 뛰고 있다. 마음은 찢어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녹아져 내린다.  
내 사랑 명석. 선생을 기억해주어라.  
너희는 선생과 정이 들어 그의 고통만 생각하면 눈물나지?  
그 맘으로 나도 생각해 주어라. 나도 옆에 있다.  
나는 죽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으로 내 온 영이 흔들리고 쓰러져도 일어났다.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일어났어.  
내 팔목이 못에 박혀 피가 그토록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빼고 싶어도 나는 너희 때문에 그 길을 가야했어.  
난 너희의 대속물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너희를 위해 너희 한사람, 한사람 위해 정신을 차려가며 다 맞고, 찢어지고 못 박혔어.  
빼고 싶어도 내 눈앞의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나는 죽었다.  
지금도 너희들로 인해 내 마음은 매일 죽는다. 너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지는구나. 내 심장이 또 터지는구나. 내 심장의 피가 또 흐르는구나.  
나를 기억해다오. 지금만 기억하면 안 돼.  
내가 주는 이글을 매일매일 읽으며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  
다시 기억해.  
화가 나도 내 맘 알면 참을 수 있고, 죽고 싶어도 내 맘 알면 죽을 수 없어.  
세상 유혹 있어도 내 심장에서 흐르던 피를 생각하면 너가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그래, 지혜로운 기도를 했다.  
내가 너에게 내 심정 말하였으니 선생에게 보내어 섭리, 세상 모두가 나의 가장 아픈 맘, 그때를 기억하여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라.  
너를 사랑한다.  
섭리를 사랑한다.  
최고의 신랑 주 예수가.

말씀을 받는 동안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며 받아 적었습니다.  
섭리 모두가 주님의 가장 아픈 그 맘을 기억하여 매일 매일 예수님을 맞고 위로해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